

메시지 3 신부의 성숙

성경: 계 19:6-9, 요 3:29, 약 5:7, 마 5:48, 골 1:28-29, 3:10-11

I. ‘성숙한’에 대한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‘마지막 지점에 이른’이다.

- A. 변화되는 것은 우리의 타고난 생명이 신진대사적으로 바뀌는 것이지만, 성숙되는 것은 우리를 바꾸어 주는 신성한 생명으로 채워지는 것이다 — 히 6:1, 골 4:12, 롬 12:2, 벤후 1:3.
- B. 변화의 마지막 단계는 성숙 곧 생명의 충만이다 — 벤후 1:4.
- C. 성숙한 믿는 이는 그리스도의 몸을 알고 돌보면서, 몸을 의식하고 중심 삼는다 — 고전 12:16, 18-19, 21, 24.

II. 신약의 용법에 따르면, ‘성숙’이라는 단어는 믿는 이들이 거듭났을 때 받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완전히 자라고 온전해진 것을 가리킨다 — 딤 3:5, 벤전 1:3, 23, 마 5:48.

- A.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결코 만족해서는 안 되며,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자라고 성숙하기를 추구해야 한다 — 빌 3:12, 14.
- B. 우리는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향하여 힘을 다해 수고함으로써, 즉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를 극도로 누리기 위해 그리스도를 가장 충만하게 누리고 얻기를 추구함으로써, 성숙에 이르도록 계속 나아가고 전진해야 한다 — 빌 3:12-15.
- C. 영적 생명 안에서 성숙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신성한 생명 안에서 계속 자라는 것이다 — 앱 4:15.
- D.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자라고 성숙한 것의 최종 결과는 충분히 성장한 사람 곧 성숙한 사람으로 자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이다 — 앱 4:13.

III. 야고보는 그의 서신서에서 농부가 오래 참으면서 땅의 귀중한 열매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을 예시로 사용한다 — 약 5:7.

- A. 주 예수님은 사실상 참된 농부, 유일한 농부이시다 — 마 13:3.
- B. 우리가 주님께서 오시기를 오래 참으며 기다리는 동안, 참된 농부이신 주님도 그분의 밭의 첫 열매와 곡식인 우리가 생명 안에서 성숙하기를 인내하시며 기다리고 계신다 — 계 14:4, 14-15.
- C. 우리가 “주님, 속히 돌아오십시오.”라고 기도한다면, 주님은 “내가 돌아오기를 너희가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희가 성숙하기를 기다리고 있다. 너희가 성숙해야만 내가 돌아가는 것이 앞당겨질 수 있다.”라고 말씀하실 것이다.
- D. 주님께서 돌아오시는 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기다린다면, 생명이 자라 성숙에 이르는 것이 필요하다. 이러한 인식을 갖는 것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된다.

IV. 성숙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속에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다. 이것은 또한 우리가 그분의 형상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— 갈 4:19, 고후 3:18.

- A. 우리가 거듭난 이후로 주님은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지닐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계속 일해 오셨다 — 고후 3:18, 롬 8:29.
- B. 주님께서 그분의 형상을 우리 속으로 완전히 일해 넣으시고 우리를 통해 완전히 표현되실 때, 우리는 생명의 성숙에 이를 것이다 — 앱 3:16-17.

V. 아가 3장은 추구하는 이의 성숙을 우리에게 보여 주며, 4장은 의지를 복종시킴으로 그러한 성숙에 도달한다는 것을 설명해 준다. 추구하는 이가 성숙에 이른 비결은 그녀의 의지가 완전히 굴복되고 부활한 것에 있다 — 아 4:4.

- A. 목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는 사람의 의지를 상징한다. 주님은 우리의 의지가 복종하는 것을 매우 아름다운 것으로 여기신다 — 야 4:1하, 4.
- B. 우리에게 복종하는 의지가 있다면, 우리의 의지는 전쟁을 위한 온갖 무기를 보유한 다윗의 망대와 같게 된다.
 - 1. 우리의 의지는 먼저 굴복되어야 한다. 그럴 때 우리의 의지는 부활 안에서 강해질 것이며, 영적 전쟁을 위한 무기고인 다윗의 망대와 같이 될 것이다 — 앱 6:10.
 - 2. 영적 전쟁을 위한 무기는 우리의 굴복되고 부활한 의지 안에 보관된다 — 고후 10:3–5.

VII. 바울의 사역의 목표는 한 새사람을 위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사람, 곧 충분히 성장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다 — 골 1:28–29, 3:10–11.

- A.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‘충분히 성장한’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또한 ‘온전한’, ‘완전한’, 혹은 ‘성숙한’으로 번역될 수도 있다.
- B. 바울의 사역은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 안으로 분배함으로써,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고 완전한 성장에 이르게 하여 온전하고 완전하게 하는 것이었다.

VIII. 창세기 37장부터 47장까지는 야곱이 성숙하는 과정에 대한 기록이다.

- A. 우리는 창세기 27장에서 빼앗는 사람을 보고, 37장에서 변화된 사람을 보면, 47장 마지막에서는 성숙한 사람을 본다.
- B. 변화의 마지막 단계는 성숙, 곧 생명의 충만이다.
 - 1.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오직 우리가 변화되고 성숙되는 것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 — 창 1:26, 골 1:28, 2:19.
 - 2. 성숙은 신성한 생명을 거듭해서 우리 안으로 분배받아 결국 우리가 생명의 충만을 갖는 문제이다 — 요 10:10.
- C. 성숙은 용량이 확장되는 문제이다 — 시 4:1.
 - 1. 생명의 성숙은 성령의 징계를 받은 것의 총체이다 — 히 12:5–11.
 - 2. 다른 사람들은 생명이 성숙한 한 사람을 보겠지만, 그 사람이 여러 해에 걸쳐 매일 은밀하게 받아온 축적된 성령의 징계는 볼 수 없다 — 고후 1:8–10, 창 47:7, 10.
- D. 하나님은 우리를 채운 모든 것을 비워 내시고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것을 제거하시기 위해, 주권적으로 여러 사람과 일과 사건을 사용하실 것이다.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채워지도록 우리의 용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다 — 뉴 1:53, 마 5:6.
- E. 야곱의 삶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계시해 준다. 어떤 일도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다.
 - 1. 성숙되기 위해 야곱은 먼저 그의 마음의 보물인 요셉을 잃어버리는 고통을 겪어야 했다 — 창 37:31–35.
 - 2. 성숙한 믿는 이는 하나님께서 궁휼이 많으시고 모든 것을 충족해 주시는 분으로서 온갖 종류의 상황에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을 배웠다 — 창 43:11, 13–14, 17:1, 빌 1:19–21상, 4:11–12, 비교 디전 6:6–8.
 - 3. 성숙한 믿는 이의 신뢰와 안식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능력에 있지 않고, 전적으로 모든 것을 충족해 주시는 그의 하나님의 궁휼에 있다 — 롬 9:16.
 - 4. 야곱이 성숙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가장 분명한 표시는 그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한 것이었다 — 창 47:7, 10, 48:14–16, 히 7:7.

VIII. 성숙한 신부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의 목표이다 — 계 19:7–9.

- A. 단체적인 신부가 준비되는 것은 이기는 이들이 생명 안에서 성숙되는 것에 달려 있다 — 계 19:7, 히 6:1, 빌 3:12–15, 엡 4:13.
- B. 어린양의 결혼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이 완성된 결과이다. 하나님의 신약 경륜은 그리스도의 법리적인 구속을 통해, 신성한 생명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구원에 의해, 그리스도를 위해 신부인 교회를 얻는 것이다 — 창 2:22, 롬 5:10, 계 19:7–9, 21:2.
- C. 요한복음에서 그리스도는 죄를 없애려 오신 어린양과 신부를 얻기 위해 오신 신랑, 이 두 가지로 계시 되신다 — 요 3:29.
- D. 그리스도의 목표는 죄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신부를 얻는 것이다.
 - 1.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어린양이시자 장차 오실 신랑이심을 본다. 그러므로 신랑으로서 그분은 반드시 결혼식을 치르셔야 한다 — 계 19:7–9.
 - 2. 어린양의 결혼식은 우주적인 결혼식일 것이다. 이것은 구속하신 분과 구속받은 이들의 결혼식일 것이다.
 - 3. 그리스도는 신랑으로서 오실 것이고, 우리는 신부로서 갈 것이다.
- E. 매우 핵심적인 문제는 신부가 준비되는 것이다 — 계 19:7.
 - 1. 요한계시록 19장 8절과 9절에 따르면, 천년왕국 동안 아내인 그리스도의 신부는 이기는 믿는 이들로만 구성된다.
 - 2. 신부가 준비되는 것은 이기는 이들의 생명의 성숙에 달려 있다. 이기는 이들은 분리된 개인들이 아니라 단체적인 신부이다.
 - 3.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큰 무리의 음성이 “할렐루야! 전능하신 분 주 우리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다스리십니다.”라고 선포한다.
 - a. 하나님의 다스림, 곧 왕국은 어린양의 결혼과 관계가 있다.
 - b. 결혼식은 주님의 통치 곧 왕국을 이끌어 올 것인데, 이는 결혼식에 초대받은 모든 손님들이 단체적인 신부이자 신랑의 공동 왕들일 것이기 때문이다. 그분의 모든 공동 왕들이 그분의 단체적인 신부일 것이다.
 - c. 이기는 이들에게 천년왕국의 천 년은 결혼 잔치일 것이다.
 - d. 결혼 잔치에 초대받은 모든 이들은 또한 왕들로서 천 년 동안의 통치에 참여할 것이다.
 - e. 이기는 이들에게 있어서, 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은 결혼 잔치일 것이다 — 계 19:9.